

근대 여성의 성명에 나타난 착종과 모순*

- 근대 초기 이름과 성(姓)을 바꾼 여성들을 중심으로**

권두연***

차례

1. 논의의 성격
2. 여성 이름의 존재론적 물음
3.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개명
4. 호명된 방식에 따른 개명 양상
 - 4.1. 교회, 세례명을 부여하다
 - 4.2. 학교, 이름을 호명하다
 - 4.3. 단체, 부인을 호출하다
5.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양상
 - 5.1. 서구식 관습에 따른 경우
 - 5.2. 일본식 관습에 따른 경우
 - 5.3. 신(新)여필중부와 여권신장의 경계
6.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연구는 근대 초 한국 여성들의 성명을 둘러싸고 펼쳐진 양상 가운데 개명과 성씨 전환에 주목함으로써 여성 삶에 내재된 균열과 착종된 근대의 모습을 중층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근대 이전 여성들에게 이름은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다. 근대 초기 이름과 성(姓)을 바꾼 일군의 여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3981)

** 학술 논문에도 현사가 허락된다면, 이 글은 연구자의 두 조모 (故)배남순, (故)최조이에게 바치고 싶다. 이 두 분으로부터 연구의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그녀들 덕에 완성될 수 있었음을 밝힌다.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성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예외적인 존재나 서구화에 강력하게 추종된 이들로 간주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현상은 근대 여성의 존재론적 위치를 묻는 동시에 인정투쟁 속에서 착종된 근대의 단면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름 없는 여성들이 집을 나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름을 얻고 호명되었는지를 학교, 교회, 단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여성들의 사례를 서구식과 일본식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로써 서구 기독교를 통해 세례명을 얻고 유학이나 신교육을 통해 새로운 이름뿐 아니라 성을 바꾼 여성들의 다층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개명이 지니는 의미와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꾸는 현상을 단순히 서구화의 추종으로만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근대 여성, 여성 이름, 개명, 성씨 전환, 학교, 교회, 부인 단체

1. 논의의 성격

이 연구는 근대 초 한국 여성들의 성명을 둘러싸고 펼쳐진 양상 가운데 개명과 성씨 전환에 주목함으로써 여성 삶에 내재된 균열과 착종된 근대의 모습을 중층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아시아 삼국 중에도 특히 한국 여성의 지위와 삶의 형태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그 성과들 역시 괄목할 만하다.¹⁾ 특히 근대에 들어 여성의 대외활동이 가능해지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따라 애

1) 애국계몽기 민족의 일원으로 여성을 호출한 이래 여성은 다양한 방식과 명칭으로 호명된다. 이에 관해서는 고미숙(2001), 이상경(2002), 홍인숙(2009)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특히 1910년대 이후 신여성에 대한 연구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김경일(2004), 태혜숙(2004), 문옥표(2003), 연구공간수유+너머 근대매체 연구팀(2005), 이희경(2005), 김수진(2009), 김연숙(2012) 등 참조. 지면 관계상, 구체적인 서명은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국부인, 전도부인, 여학생, 신여성 등 여성이 다양한 사회적 주체로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전까지 공론장에 거론된 적 없는 여성들은 학교나 교회, 단체 활동, 사교 모임 등에서 어머니의 자격으로든, 부인의 자격으로든, 여학생의 자격으로든 다양한 주체로 호명되기에 이른다. 호명은 필수적으로 이름을 수반한다. 김씨 부인, 김집, 김소사와 구분되는 이름이든 섭섭이나 간난이 처럼 집에서 부르던 아명이든 학교나 교회, 부인 단체들에서는 공식적인 ‘이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호명된 여성들은 이제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불릴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여성 이름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민적법(1909)이 실시되기 이전까지 한국 여성들에게는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만 이름이 부여되었다.²⁾ 그리하여 몇몇 선각적인 여성들은 세례를 통해 마리아나 에스더와 같은, 이른바 세례명을 새로운 이름으로 얻게 된다. 이 시기 유독 마리아나 에스더와 같은 이름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이름만이 아니라 성(姓)까지도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서나 관련 선행 논문들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들은 신교육이나 기독교의 영향으로 ‘서구적 관습’을 따른 것으로 취급되거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치부된 경향이 있다.³⁾ 그렇지만 이러한 양상은 초기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을 결정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이해된다. 이 현상들이 일부 몇몇의 여성들에게 국한된, 단순히 예외적 ‘스캔들’이나 근대 초기 몇몇 여성 선각자들의 ‘해프닝’으로 간주되어선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조규태, 「민적부에 나타난 여자 이름 연구」, 『여성문제연구』 10, 1981, 297~306쪽. 이밖에 여성 이름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였다. 조규태, 「朝鮮時代 女子 이름의 語學的 考察」, 『여성문제연구』 9, 1980, 283~306쪽; 김하라, 「조선 여성의 이름에 대한 한 고찰-유만주의 여성인식과 관련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83~118쪽; 이정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름 정책과 이름의 변화 양상들」, 『역사민속학』 49, 2015, 87~120쪽.

3)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1:개화기-1945년』, 숙대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91쪽 및 연구공간수유+너머근대체 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49~51쪽.

더욱이 이 과정에서 전통과 근대의 가치관이 착종되거나 혼종적인 측면을 보이기까지 한다.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이 연구는 크게 이름과 성으로 나누어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여성 이름의 존재론적 물음과 사회적 현상에 관한 것으로, 근대 초기에 이름이 없던 여성들은 교회나 학교를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거나 부인사회나 단체 및 회(會)의 활동을 통해 공론장에 이름을 내밀게 된다. 이로 인해 이전에 없던 다양한 양상이 전개된다. 가령 ‘유지 여성’들 가운데는 이름 짓기 현상이 유행하여 한 사람이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는가 하면, 이름을 바꾸었다는 개명 광고를 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인지 부인 명함을 판다는 광고가 신문 지면에 일상적으로 소개된다. 그런가 하면 각종 부인회나 여학교 관련 기사에 여성의 이름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아무개 부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 석자로 신문에 기고하는 이들과 생겨난다. 급기야 여성의 이름으로 잡지들이 발간되기에까지 이른다. 이처럼 이 시기 신문, 잡지를 비롯하여 학교, 교회, 단체 등지에서 다양하게 활동한 여성들의 이름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1차 목표이다.

둘째, 이름과 성을 바꾸는 여성들의 사례를 다양하게 재구할 것이다. 우선 이름을 바꾸는 개명의 경우는 학교, 교회, 단체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주에 따른 사례들을 조사, 수집하고 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 여성 주체의 개명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성씨의 경우는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시기 성을 바꾼 여성들은 상당히 많지만 대내외적으로 그 사실을 표명하거나 드러낸 경우는 드물며 대개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이들의 경우에 한해 그것도 주로 신문과 같은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거나 생의 후반에 가서야 회고나 자서전을 통해 기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서구적인 관습에 따라 바꾼 경우와 일본의 관습에 따라 바꾼 경우로 크게 대별하여 구조화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들의 사례도 제시함으로써 성(姓)을 바꾼 이들의 양상을 보다 다층

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셋째, 근대 초기 여성의 개명과 성씨 전환에는 여성의 삶의 흔적은 물론 근대 사회로의 유입 과정에서 초래된 균열과 모순이 포착된다.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여성은 대개가 이름 없는 존재로 살다 갔지만 근대 초가 되면 이들은 신교육과 신사상의 유입으로 이름을 부여 받거나 바꾸게 된다.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게 되면서 일부 여성들은 보다 과감하게 성(姓)을 바꾸는 데에까지 이른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은 부계의 성을 따르는 관습으로 여성은 결혼을 해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⁴⁾ 그런데 이 시기 일부 여성들은 결혼한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된다. 그로 인해 남편과 동일한 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흥미로운 현상을 두고 기존 연구서들에서는 서구화에 강력하게 추동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姓)을 바꾼 여성들의 다양한 사례 가운데, 일본 사교계와 활발하게 왕래했던 대신들의 부인이나 일진회 회원들의 부실에게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이는 보다 복잡한 층위들을 내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성명을 바꾼 여성들의 양상이 단순하게 구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 천착함으로써 가부장적 유교 질서와 서구적 근대 질서 속에서 착종된 근대성의 한 단면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2. 여성 이름의 존재론적 물음

근대에 들어 여성이 호명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김씨 부인, 평양댁, 리소사처럼 불렸을 이들은 이제 여러 김씨 부인들 가운데 어떤 김씨인지, 여러 리소사 가운데 어떤 리소사인지 분별되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다면 호명된 이 개별 여성들은 어떻게 불렸을까? 유감스럽게도 근대 초기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대한 기록을 남긴 외국

4) 김재국, 「現代 女性の 姓氏에 관한 權利」, 『민사법연구』 8권, 대한민사법학회, 2000, 83~86쪽.

인에게 조선 여성은 대개 이름 없는 존재로 비쳤다. 이들은 이름 없는 조선 여성들을 특기할 만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자는 이름이 없다. 대개의 처녀들이 어떤 별명을 받고, 나이 더 먹은 친척이나 집안 친구들이 그들의 어렸을 때만 그 별명으로 그들을 부름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과년하면 부모만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남들과 마찬가지로, 아무개의 딸, 아무개의 누이와 같은 완곡한 표현을 쓴다. 시집간 뒤에는 여자는 이름이 없어진다. 친정 친척들은 대개의 경우 그 여자가 출가한 고을 이름으로 부르고, 시가 친척들은 시집오기 전에 살던 고을 이름으로 부른다. 때로는 간단히 아무개(남편의 성)덕이라고만 부르는 수도 있다. 법정에 출두해야 될 때에는 수령은 공판의 편의상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직권으로 그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준다.⁵⁾

샤를 달레를 비롯하여 당시 조선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서양인들의 눈에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아무개의 딸’과 ‘아무개의 누이’로 불리고 결혼하면 그마저도 없어서 “이름 없는 존재”로 간주된 일은 비일비재하다.⁶⁾ 실제 차미리사의 경우 “오십줄에 당신 혈육이라고 처음 생긴 아기가 아들이 아닌 것을 아시고 「섭섭」이구나 말씀하신 아버지의 절망에 가까운 말씀은 조금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애명은 끝끝내 「섭섭이」가 되었다.”고 자신의 소녀시대를 추억한 바 있다.⁷⁾ 차미리사의 회고가 단순히 한 개인의 서술에 그치지 않는 것은 수많은 섭섭이들이 미리사나 마리아가 되기 때문이다.

김동인의 초기작 「약한者の 슬픔」의 여주인공 쉐엘니자벳트는 전차에서 자신의 몸이 타인의 시선에 비쳐지는 성적 경험을 하게 된다.⁸⁾ 근대

5) 샤를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韓國天主教會史』 上, 분도출판사, 1979, 183~184쪽.

6) 제이콥 로버트 무스, 문무홍 외 역,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146~158쪽.

7) 김미리사, 「소녀시대의 추억」, 『동광』 31호, 1932.3, 79~80쪽.

8) 김동인, 「약한者の 슬픔」(첫), 『창조』 창간호, 1919.2, 69쪽.

의 시선과 섹슈얼리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학사적 장면인데 근대 초기 여성이 자유롭게 외출하게 되면서부터 겪게 되는 양상을 예민한 작가는 일찍이 포착했다. 그런데 작가가 기민하게 포착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옥련도 영채도 아닌 엘니자벳트라는 이 특이한 이름의 여주인공을 내세운 것부터가 동시대 작가들과 차별된다. 도대체 이러한 이름이 소설이니 가능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기실은 그렇지 않다. 강엘니자벳트와 같은 서양식 이름의 등장은 당시 혼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서양식 이름은 당시 혼한 것 중의 하나였는데,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1877-1910), 지금의 덕성여대 전신인 근화여학교를 설립한 차미리사(1880-1951), 김마리아와 함께 '애국부인회'를 조직했던 황에스터(1892-1971), 1914년 이화대학의 최초의 졸업생인 김앨리스, 신마실라, 이도리티, 그리고 하란사(1875-1919)의 상동예배당 영어학당의 첫 제자들인 신알벨트, 손메레, 양우러더 등이 그 예이다.⁹⁾

박에스터, 차미리사, 황에스터, 하란사 등 인용문에서 생몰연도가 밝혀진 이들은 대부분이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났다. 대표적인 근대 여성 주체로 주목받아 온 '신여성'이 1910년대에 등장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처럼 서양식으로 이름을 바꾼 여성들의 출현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서양 이름을 가진 근대 선각적인 여성들의 등장은 '신여성'에 앞서 도래한 셈이다.¹⁰⁾ 그렇다면 이 많은 서양식 이름의 등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에스터나 마리아와 같이 서양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현상을 넘어 성을 바꾸는 사례들도 등장한다. 정화여고를 설립하고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알려진 김정혜는 양재건의 딸이지만 양정혜가 아닌 김정혜로 생을

9) 연구공간수유+너머근대매체 연구팀, 앞의 책, 49~51쪽.
10) 『광무유희시대의 신여성총관』, 『삼천리』, 1931. 5, 66~67쪽.

마감한다.¹¹⁾ 또 현 덕성여대의 전신인 근화여학교를 설립한 차미리사도 1930년대 중반까지는 김미리사로 활동했고 생의 후반에 가서야 자신의 본래 성을 되찾는다.¹²⁾ 박에스터와 신마리아, 김배세는 모두 자매지간인데 성이 각기 다르다. 이처럼 근대 초 여성 선각자들 가운데는 이름만이 아닌 성까지도 바뀐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 그러니까 양재천의 딸 양정혜가 어떻게 김정혜로 생을 마감하였는지, 차미리사는 왜 자신의 본래 성을 두고 20년을 넘게 김미리사로 활동했는지, 세 자매는 어찌된 까닭에 각각 성이 다르게 된 것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물론 근대 초기 성명이 바뀌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이한 현상이 어선지 여성 관련 풍속사나 문화사 등에서 꽤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1) 개화와 더불어 여성들은 활란(헬렌), 미리사, 마리아, 에시덕(에스터)과 같은 외국 이름으로 이름을 짓기도 하고 심지어 미국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꾸는 경우도 생겼다. 하난사, 이홍경, 박에스터와 같은 근대 초기 신여성들은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꿨다. 이러한 일은 근대 초기에 벌어진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얀 피부와 수직적으로 긴 서구 여성의 외모가 미인의 전형으로 제시되면서 미적 기준조차 서구화된다.¹³⁾

(2) 여성이 이름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서양식 이름이었다는 것, 심지어 이들이 이름을 갖자마자 성까지 남편 성으로 바꾸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여성의 근대화가 사실 서양(기독교)에 의해 강력히 추동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초의 근대적 여성들은 그 이름부터 강력히 서구 혹은 모던을 환기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식민지 남성들

11) 정화오십년사편찬위원회, 『眞和五十年史』, 1958, 138~142쪽 및 이경지 외, 『김정혜여사소전』, 개성여자교육회, 1928, 32쪽.

12) 한상권 편저, 『차미리사 전집』Ⅱ, 덕성여대차미리사연구소, 2009, 30쪽.

13)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1 :개화기-1945년』,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91쪽.

의 근대적 여성에 대한 양가적 감정, 즉 동경과 멸시의 근거가 된다.¹⁴⁾

인용문들은 이름을 바꾸고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꾼 여성들에 대해 언급한 대표적 서술로, “외국 이름”이나 “서양식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꾼 현상에 대해 공통적으로 서구화에 따른 추종으로 간주한다. 근대적 여성들은 이름부터 강력히 서구 혹은 모던을 환기했고 모든 미적 기준을 서구화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서구화에 따른 결과로만 보기에는 이름을 바꾸고 성을 바꾼 여성들의 사례가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인용문대로 “미국식으로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꾸”었다고 했지만 이 논리는 여필종부(女必從夫)를 강조한 유학자들의 논리와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사례는 서구/기독교 외에 다른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기에 보다 면밀하고 다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처럼 근대 초기 여성들의 이름과 성(姓)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현상들은 근대 여성 주체의 존재론적 의미를 제기한다는 점 외에도 착종된 근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여성들이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현상은 기독교와 신교육을 통해 학습된 서양식 관습에 따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남편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유교적 관습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부장적 질서를 예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여성들 대부분이 일찍이 개화된 집안에서 자라 기독교의 영향을 받거나 신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당시 교육계나 종교계, 의학계 등의 분야에 투신한 직업여성이나, 전문여성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적과 배치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대 초 성(姓)과 이름을 바꾼 여성들에 주목하여 이들을 몇 가지 양상으로 체계화해 봄으로써 여성 이름의 존재론적 문제에 대해 묻는 동시에 성명 변화에 따른 착종된 근대의 모습과 균열을 구명

14) 연구공간수유+너머근대매체 연구팀, 「이름으로서의 마리아」, 앞의 책, 50~51쪽.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근대 초기 여성이 집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 가운데 호명될 때 발생하는 양상을 성명, 즉 이름과 성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특히 앞서 제기했던 두 가지 물음, 즉 자신의 이름을 서양식으로 바꾸는 경우와 성을 바꾸는 경우로 나누어 이름과 성이 바뀌는 양상을 사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명과 성씨 전환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 초기 여성의 이름 및 성씨 전환의 문제는 근대 사회로의 유입 과정에서 일어난 여성들의 인정투쟁과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는 물론이고 젠더적 위상 변화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관점을 제안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개명

성명 없는 여성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양반의 부녀자는 생가의 성에 씨를 붙여 부를 뿐 이름이 없었고, 상인의 부녀자는 성을 부를 수 없어 이름만 불렀으며, 그 어느 쪽도 족보에는 아예 이름이 오르지 못하던 이조사회의 여성에 비해서 원망에 의한 이름이나마 여자가 성과 이름을 함께 지니게 된 20세기는 여성사에 길이 오르내릴 것이다.”¹⁵⁾라며 성명을 얻게 된 여성들의 의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아들이 아니어서 섭섭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섭섭이처럼 “원망에 의한 이름이나마” 여성이 이름을 지니게 된 것은 불과 한 세기에 지나지 않는다.¹⁶⁾

당시 여성 문제에 주목했던 『제국신문』에는 이 시기 여성들의 이름에

-
- 15) 성명 없는 여성의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옥수의 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옥수, 「성명(姓名) 없던 딸아이」, 『한국근세여성사화』 上, 규문각, 1985, 33쪽.
 16) 이입하, 「20세기 여성,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다를 내면서」, 『20세기 여성,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다』, 국사편찬위원회, 2007, 6쪽.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밝혀두면, 여성에게 이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부여되었던 이름이 성과 이름, 즉 성명의 형태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그것도 공적 영역에서 불릴 기회가 주어지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된다.

세계만물 무한하나 다 각기 일흠잇서 무엇 무엇 구별인디 심지어 기증심도
 삼사리니 동경이니 다 각각 일흠잇고 초목곤충 명목잇서 무엇이랴 불은것만
 엇지하야 디한국 녀즈들은 성만 잇고 일흠업서 리부인 김소사니 부인 칭호도
 치만은 허다흔 리부인에 허다흔 김소사를 그 뉘라서 분별홀가 이전 력사 상고
 하니 유명흔 부인들은 일흠업는 부인업고 지금 세계 언으 나라 일흠업는 부인
 잇나 시디가 변천하야 녀즈사회 발동홀제 일흠업시 못되리니 녀학교학도들은
 즈연이 잇슬터요 부인협회 녀즈 성업고는 못될지니 일흠짓기 시작호오 여자일
 흠 처음이라 듯기에 이상하느 별호갓치 통용하면 즈연습관 무방이오 일흠을
 짓더리도 당짜일흠 괴이하니 순순하게 즈호갓치 일일이 시행하면 그 안이 도
 켓는가 일흠업는 녀즈들은 구신도 슈치되네 우리나라 녀즈들도 남파치 일흠지
 어 사릅노릇하야보세¹⁷⁾

「女何無名」 즉 여성은 어찌 이름이 없는가라는 제목의 잡보 기사에 의하면 세상만물에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구별의 기능이 있으니 개나 초목에 이르기까지 각기 모두 부르는 이름이 있건만 한국의 여자들은 성만 있고 이름이 없어 김소사니 리부인 등의 칭호로만 불린다는 것이다. 이전 시대에도 유명한 부인들에게는 이름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름 없는 부인이 없거늘 우리나라 여자들도 이처럼 이름을 지어 사람 노릇하자는 것이 글의 요지이다.

물론 여성들이 사람 노릇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공론의장에서 공공연하게 표출한 것은 훨씬 이전부터이다. 북촌 여성들이 여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광무 2년(1898) 9월 1일 발표한 여학교 설치 통문에서 이미 여성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낸 바 있다. 그런데 첫 통문에서 통문 공표인을 '리소사', '김소사'로 성씨만 밝힌데 반해, 다음 9월 27, 28일자

17) 「女何無名」, 『제국신문』 1906.6.13, 2면 잡보.

발표문에는 양성당 리씨, 양현당 김씨, 창길당 이씨, 양진당 태씨, 정길당 고씨 등의 당호를 붙이고 있다.¹⁸⁾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밝히고 있지만 리소사가 양성당 리씨로, 김소사가 양현당 김씨로 바뀌고 있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이름은 제시되지 않는다. 『제국신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당짜일흠”이라는 비판의 칼을 겨누면서 제대로 된 이름을 요구했던 것이다. 『제국신문』의 요구는 급기야 논설로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본국 녀즈의 일흠 잇는 자 업더니 근일에 었던 녀인들이 무슨당이니 무삼당이니 하고 일흠 형세흐는 자 간간이 잇스니 그거슬 다 일흠이라고는 홀 슈 업스나 근일 유지흐 부인들은 일흠짓기를 남즈와 방불흐게 하는 자 더러이 잇으나 너부대신 리지용씨 부인 홍씨는 홍경현敬賢이라 일흠흐고 한성관운 박의병씨의 부인 류씨는 외즈 일흠으로 류덩 柳汀이라 일흠흐야 학교 창설하는 발기인으로 광포하얏스니 그런 대관네 부인도 일흠짓기를 시작하얏스니 필경 녀즈마다 일흠이 잇슬 거시오 또학교에 단이는 녀즈들은 즈연중 일흠이 잇슬지니 불구에 녀즈의 일흠업는자업슬 줄 분명이 짐작흐는 바라 었지 허다흐 갖흔 성에 김소스 리소스로만 형세흐는거시 가하리오¹⁹⁾

위 서술을 통해 당시 여성 이름에 대한 인식은 물론, 실제 유행하고 있던 이름의 형태들을 알 수 있다. 인용문에서 언급한 “무슨당이니 무삼당이니”는 당시 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명칭이다. 대표적으로 신소당, 양현당과 같은 인물들은 당시 각종 여성 단체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매체에 자주 언급되었을 뿐 아니라 『제국신문』을 비롯한 매체에 직접 기사를 보내기도 하였다.²⁰⁾ 『제국신문』은 여성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한 이 부인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름에 대해서는 비판적

18) 최숙경, 「개화기 여성 생활 문화의 변동과 전개」, 『여성학논집』 16, 1999, 9~29쪽.

19) 「부인사회의활동」(런숙), 『제국신문』 1906.7.13, 1면 논설.

20) 이경하, 「애국계몽운동가 申齋堂의 생애와 신문독자투고」, 『국문학연구』 11권 11호, 2004, 115~131쪽.

이었다. 뿐만 아니라 “허다흔 리부인에 허다흔 김소사를 그 뉘라셔 분별
 흥가”라며 “허다흔 갖흔 성에 김소스 리소스로만 흥세”하는 세태까지도
 꼬집고 있다. 소사는 당시 여성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이었던
 데²¹⁾ 명칭이나 호칭이 아닌 본인의 이름을 요구한 것이다. 실제로 국채
 보상운동을 비롯하여 당시 많은 여성들이 사회운동이나 단체 활동에 참
 여했고 사회적 기부를 펼쳤다. 이때 신문과 잡지들은 기부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밝혔는데 기사의 내용처럼 허다한 부인과 소사들이 속출한 것이
 사실이다.

여성 이름에 대한 이 같은 요구는 계몽적인 논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유지 부인(有志婦人)²²⁾들의 이름 짓기라는 유행을 불러일으킨다. 위 인
 용문에서 언급된 내부대신 이지용의 부인 홍씨가 홍경현(洪敬賢)으로, 한
 성관윤 박의병의 부인 류씨가 류정(柳汀)으로 이름을 지었다며 구체적인
 이름자를 거론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름을 짓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다. 후술하겠지만 이들은 새롭게 얻은 이 이름을 또 바꾸는 개명 행위
 를 여러 차례 시도했을 뿐 아니라 성을 바꾸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유지한 여성들의 이름 짓기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자 개명 광고를
 내는 여성들도 나타난다. 1890년대 말이 되면서 이름을 바꾼다는 개명 광
 고들이 신문 지면에 심심치 않게 소개된다.²³⁾ 그러나 이는 대부분 남성
 들의 경우에 한해서였다. 1907년 3월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에 다음과
 같은 개명 광고가 등장한다.

本人의 名繁子를 英子로 改稱호오니 照亮흥
 金英善夫人박英子告白²⁴⁾

21) 배대운, 「여자이름 '召史'에 대하여」, 『배달말』 35권, 2004, 431-446쪽.

22) ‘유지 부인’은 <女子教育會 趣旨書>를 비롯하여 당대 일반적으로 쓰인 표현이다.
 『女子教育會趣旨書』, 『대한매일신보』 1906.11.1, 3면 잡보; <在日本斷指留學生學
 資義捐>, 『황성신문』 1907.2.11, 4면 광고; 『有志婦人』, 『제국신문』 1907.4.3, 2면
 기사; 『有志婦人』, 『대한매일신보』 1908.3.18, 2면 잡보.

23) 『安氏改名』, 『황성신문』 1899.2.8, 4면 잡보를 필두로 개명 광고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김영선(金英善)의 부인이 자신의 이름을 번자(繁子)에서 영자(英子)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박번자가 '박英子'가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김영선의 부인 박번자는 여자교육회 회원으로 통상회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이 시기 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인물이다.²⁵⁾

1) 養閨義塾에서 經費가 窘絀하야 日以爲悶이러니 李載克氏가 三十圓과 度大 閔泳綺氏夫人이 二十圓과 朴繁子氏가 二十圓과 申蕭堂氏가 十圓을 義捐하야 該塾을 維持케 하고 諸夫人이 爛商하야 永久히 贊成한다 하니 女子發達이 此塾의 可以基礎가 되겠다 하더라²⁶⁾ (밑줄 강조-인용자)

2) 新門外養閨義塾은 昨年六月頃에 創始하야 生徒가 六十名에 達하더이 向日에 該에서 風波가 忽起으로 男子任名은 一切遞去하고 塾長은 前判書金 奎弘氏夫人申蕭堂氏을 名望으로 推薦하고 學監은 閔泳綺씨夫人閔朴泳인씨로 塾監은 金英善씨 夫人 朴英子로 幹事兼會計은 崔永年씨夫人金子로 改差하고 一般塾況은 一新히 改良하얏다더라²⁷⁾ (밑줄 강조-인용자)

인용문 1)은 1907년 1월 7일자 기사로 양규의숙의 경비를 지원하는 이들을 소개하는데 민영기의 부인이나 신소당과 함께 박번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16일 기사인 인용문 2)에서는 신소당, 민영기씨 부인 민박영(閔朴泳)²⁸⁾과 함께 김영선씨 부인으로 박영자가 등장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1907년 3월 개명 광고 이후 5월부터 박번자는 박영

24) 『대한매일신보』(국문판), 1907.3.7, 3면 광고.

25) 「女子教育會 會況」, 『만세보』 1906.11.27·12.13·12.26 및 「女子討論」, 『황성신문』 1907.1.17, 3면 잡보.

26) 「女校進旺」, 『황성신문』 1907.1.7, 3면 잡보.

27) 「閨塾任員」, 『대한매일신보』 1907.5.16, 2면 잡보.

28) 인용문 1)의 민영기씨 부인은 인용문 2)에서 민박영으로 소개된다. 이 이름 역시 남편 성에 자신의 성을 결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자로 소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907년 1월까지만 해도 양규의 숙의 경비를 의연(義捐)하거나 여자교육회에서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던 박번자는 개명 광고를 낸 이후부터 박영자로 활동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는 부인들의 개명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시 이름이 없거나 있었어도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던 여성 이름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개명 광고와 함께 유지 여성들의 이름 짓기 현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는 부인 명함의 등장이다.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신문·잡지를 비롯하여 단행본 서적뿐 아니라 각종 인쇄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명함 역시 이 시기 활발하게 유통되기 시작한 인쇄물 가운데 하나이다. 영문과 한글로 된 이름 석 자를 박아 넣은 명함은 당연하게도 남성의 전유물로 간주되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부인 명함 광고도 나오기 시작한다.

본사에서 기레(계)를 신비하고 각식 명함을 특이 염가로 인쇄함
 통상지 三号每百張 新화 十四錢 四号 全 十五錢 五号 全 十六錢 六号 全
 十八 七号 全 二十錢 八号 全 二十二錢 九号 全 二十四錢 十号 全 二十六錢
부인 명함과 협서와 증상품지와 금태지 갑순 본사에와셔 상의함
 인쇄소 태국신문사 (강조-인용자)²⁹⁾

이 광고는 처음에는 부인 명함이라는 표현이 없다가 1906년 3월 7일부터 그 구절이 삽입되어 여성들의 명함을 알리는 광고로 쓰이게 된다. 같은 시기 『만세보』에 연재된 이인직의 「혈의누」에도 주인공 옥련이 일곱 살에 헤어진 아버지 김관일을 찾아갈 때 그 아버지가 낸 신문 광고와 자신의 명함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³⁰⁾ 미국에서 유학하는 김옥련 역시 명함을 통해 그 아버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했던 것이다. 이처

29) <명함인쇄특별염가>, 『태국신문』 1906.3.7, 4면 광고.

30) 국초, 「혈의누」, 『만세보』 1906.9.30, 1면 소설.

림 소설에서 명함을 사용하는 여학생이 등장하고 부인 명함을 만들라는 신문 광고를 통해 여성의 명함은 보다 대중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결국 내외법의 폐지로 자유로이 집밖 출입이 가능해진 여성들에게 명함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용품이 되기에 이른다. 여성들의 활동은 교회와 학교, 부인회와 같은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이때 이름은 문체적으로 떠오르게 된다.

4. 호명된 방식에 따른 개명 양상

4.1. 교회, 세례명을 부여하다

근대 초기 여성들에게 이름이 없었다는 인식은 특히 기독교와 관련한 문서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앞서 본 샤를 달레와 같은 외국인 선교사 외에도 이름을 얻게 된 당사자를 통해 자주 목격된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여성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증언을 남기고 있다.

1) 노블목사의게 세례를 받고 세디(Sadie)란 일흠을 얻었다. 나의 일흠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래동안 일흠이 업시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 넘어 세례받던 날로부터 여자된 권리 중에 한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로 보면 조선 녀자에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만하다.³¹⁾

2) 나의 세례받던 날은 내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었다. 우리 조선녀자들은 몇 천년 동안을 남자에 압박아래서 성명이 업시 살았다. (중략) 五十年동안을 일흠 업시 살다가 이날에야 비로소 「씨커스」한 새일흠을 얻었다.³²⁾

31) 김세디, 「나의과거생활」, 『승리의 생활』, 노블부인 편, 조선기독교창문사, 1927, 40쪽.

32) 김서커쓰녀사, 「은혜만흔나의생활」, 앞의 책, 72쪽.

세디(Sadie)와 써커스라는 세례명을 이름으로 얻게 된 정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두 인용문에서 공통적으로 “새일흠을 엇”은 사실을 조선 여자의 해방이나 남자의 압박과 연관시키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준 자유나 평등의 문제가 이전 시대의 가부장적인 가족제로부터 해방되거나 남성 중심주의적인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방증하는 언급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성들에게 신앙을 통한 자유와 평등은 물론이고 종교를 넘어 사회질서 내부를 격파하는 이념적인 인식이나 의지까지도 동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 초 여성들이 의식했건 그렇지 않건 여성 이름에 내포된 문제가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드러낸다. 초창기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새롭게 부여받거나 개명한 것은 이슈가 됨직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이름을 나열한 표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세례명을 본명으로 삼고 있다.

<표1> 초기 한국 기독교 여성들의 이름³³⁾

	이름	영문명	한역명	활동
1	어메레	Mary	余袂禮	보호여회 창설, 진명여학교 설립
2	김세지	Sadie	金世智	평양 대한애국부인회 창설
3	하란사	Nancy	河蘭史	이화학당 교사
4	노살롬	Shalom	魯撒南	강서교회 개척전도부인
5	주롤루	Lulu	朱訥婁	해주지방 전도부인
6	김마리아	Maria	金瑪利亞	서울 대한애국부인회 창설
7	황애덕	Esther	黃愛施德	이화학당 및 협성여자신학교 교수
8	최나오미	Naomi	崔耐娛美	시베리아 선교사
9	양우로더	Rhoda	梁雨露德	북만주 선교사
10	손메레	Mary	孫袂禮	여성 절제운동 창시자

33) <표1>은 이덕주, 「초기 한국 기독교 여성 역사 이해」, 『세계의 신학』 제28호, 1995, 119쪽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보완한 것이다.

11	김활란	Helen	金活蘭	이화여대 총장
12	차미리사	Mellisa	車美理士	조선여자교육회 창설, 동덕여대 설립
13	박에스터	Esther	朴愛施德	보구여관 의사

세례를 받은 여성은 이미 18세기부터 천주교가 조선에 정착하게 되면서 성행했고³⁴⁾ 세례명은 섭섭이나 이름이 없던 조선 여성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한다. 물론 교회에서 세례명을 받은 사람이 여성만은 아니다. 상당수의 남성들 역시 가브리엘, 안토니오 같은 세례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만큼 전면적으로 세례명을 내세우거나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 시기 여성들의 세례명은 문제적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세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마리아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³⁵⁾

흥미로운 것은 이 세례명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음역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Mary는 메레(메레)로 표기했는데 굳이 여기에 맞는 한자의 음역을 찾아 袂禮로 명기했다. Maria=마리아=瑪利亞처럼 영문 이름과 한글, 한자의 음이 모두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영문 이름의 한글 음에 맞는 한자를 조합하여 이름자를 구성한 것이다. 가령 Shalom은 한글로 살롬으로 쓰고 여기에 가장 근접한 한자를 찾아 撒南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또 Esther처럼 한자 음역 표기는 愛施德으로 동일하지만 한글로는 애덕이나 에스더처럼 다르게 쓰인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영문으로 된 세례명을 한글과 이를 다시 음역한 한자, 세 가지로 표기했다는 점은 작명(作名)의 또 다른 측면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순한글로 지은 이름이 아닌 이상 이름은 모두 한자로 된 글자로 구성되었고 이는 단순 음차가 아니라 뜻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Sadie가 세상의 지혜가 되고 Esther가 사랑과 덕을 베풀

34) 방상근,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34, 2010, 63~88쪽.

35) 「이름으로서의 마리아」, 앞의 책, 49~51쪽.

푸는 식으로 말이다.

4.2. 학교, 이름을 호명하다

학교는 교회 다음으로 여성이 출입할 수 있었던 근대적 공간이자 공적 기관이다. 물론 초기 여학교들은 교회와 연동된 미션스쿨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교회와 유사성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교회와 마찬가지로 미션스쿨의 초기 여학생들도 이름 없이 학교에 입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초기 설립된 대표적인 여학교인 이화학당의 초기 여학생들 역시 예외이지 않다. 『이화칠십년사』에는 ‘이름 못 갖는 여자’와 ‘서양식 이름’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 시절에 여자는 성명도 없었다. 성은 있으나 이름 두자는 필요가 없어서 짓지 않았다. 이름이란 무슨 사회적으로 출입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소용없다고 생각된 그 시대에 집안에나 들어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이름 같은 것은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라는 이름도 업이 그저, 김씨, 이씨 하여 겨우 성이나 따를 정도였다.”³⁶⁾고 한다.

이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민적법이 없고 여자들은 이름도 지어주지를 않고 이씨, 김씨, 정씨로 불리우던 시절인데 이화학당에서는 세례를 주고 나서는 세례 이름들을 하나씩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없던 이 소녀들은 룻세(樓世)니 「올라」니 「에스터」, 「마그렘」, 「헬런」 이런 서양식 이름들을 얻어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 신여성의 제일대를 지어준 역사적인 이 학생들의 이름중에는 趙라이나(一名 별단), 河蘭史, 에스터朴, 메리黃, 金 룻세, 李 乙羅, 헬렌崔 등이 있었다.³⁷⁾

36) 이화칠십년사편집위원회 편, 『이화칠십년사』, 이화여자대학교, 1956, 11~12쪽.

37) 이화칠십년사편집위원회 편, 앞의 책, 42~43쪽.

이렇게 여성에게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여학교가 설립되면서 자연스럽게 집이 아닌 집 밖에서 사용할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름이 있는 이들조차도 서양식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는 사실이다. 인용문에 언급된 “에스터朴”은 원래 ‘김점동’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에스터’가 되었고 김활란(金活蘭)의 경우도 원래 이름인 ‘己得’이 있었지만 ‘Helen’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Helen’의 한역 표현인 활란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같은 시기 장로교 학교인 정신(貞信)학교 초창기 학생명단과 비교하여 볼 때 이화학당 학생에게 유난히 서양식 이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최숙경에 의하면 이러한 양상은 “아마도 감리교의 한국 여성 선교의 시작이 ‘이름조차도 없는 한국 여성들’의 관심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세례 때 이름 지어주는 일에 특별히 유의했던”³⁸⁾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은 한국 여성 선교가 근대 여성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초창기 교회의 여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³⁹⁾ 이처럼 미션스쿨과 교회는 연동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서구 기독교의 전파가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이증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으나 모든 여성이 교회와 미션스쿨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 이상에야 이를 당연한 결과나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는 관점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미션스쿨 여학생들의 이름을 선교사들이 지어 준 세례명으로 대신했던 것처럼 한성고등여학교 역시도 학생들의 이름이 없어서 당시 교장이었던 어운적 자신이 일일이 이름을 지어 학적부에 기재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진다.⁴⁰⁾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경기여고 졸업명부>를 참조하면 1회 졸업생 31명 가운데 희(姬), 숙(淑), 자(子)로 끝나는 이름이 유독 많은 것

38) 최숙경, 앞의 글, 16쪽.

39) 여기에 대해서는 강선미의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서양여선교사와 조선여성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푸른사상, 2005에 잘 드러나고 있다.

40) 손인수, 『한국여성교육사』, 연세대출판부, 1977, 244쪽.

을 알 수 있다.⁴¹⁾ 뿐만 아니라 초창기 신문들의 여학교 졸업식 보도에 언급된 여학생들의 이름 역시 그다지 다양하지가 않다.

<표2> 초창기 여학교 졸업식 기사에 게재된 여학생 이름⁴²⁾

학교명	졸업생/우등생	재학생(우등생)	
養源卒業式 (一回)	金順熙, 李鍾淑, 李永珍, 柳好基, 孔錫璉, 禹淑一, 金彩雲	李壽南, 李貴同, 權元熙 、全玉, 趙貴鳳/李仁順, 李漢甲, 金大吉, 白載榮/ 朴貴男	황성1909.1.16
養閨義塾 (二回)	崔氣順, 李鳳子/李敬子, 張世鳳, 金今順, 洪啓順, 李淑子/林慶玉, 高蘭子, 洪東子		황성1909.4.21
三崇女學校 (二回)	張恩龍, 崔梅智, 全心德, 尹合羅, 趙永善, 河道明		대매1909.7.7
長淵郡松川 學校	朴滿喜, 徐信通, 金碩愛		대매1909.7.20
進明女學校 (三回)	趙南淑, 李道羅, 洪錦厚/崔宗雲, 柳順司, 張敬愛, 金福同, 尹秉淑, 金祥雲, 李鍾淑	金英鉉/李齊賢/崔德相/許英 淑/白玉天/金荃子/金春子	대매1910.4.5
淑明女學校	김숙경, 김경희, 김보경, 리상경		대매1910.4.12
貞信女學校	洪恩喜, 劉花俊, 金美林, 金馬利亞, 吳玄觀, 李慈卿, 兪珥卿, 禹鳳玄, 朴鳳練		황성1910.6.19
勝洞女學校	元博愛, 林眞實, 金裕實		황성1910.6.19

일단 언급되는 인물 자체가 수적으로 많지 않은데다가 여성의 이름자로 사용되는 한자 수가 순(順), 숙(淑), 자(子), 애(愛), 봉(鳳) 등 몇몇 특정 한자어에 제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기여고 졸업명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또 한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습

41) <경기여고 졸업명부>, 『경기여고오십년사』, 경기여자고등학교, 1957, 104쪽.

42) 신문에 게재된 초기 여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 명단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하는 고신문 아카이브를 이용해 1909년과 1910년 사이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신문 검색을 통해 조사하였다.

羅, 道羅, 馬利亞와 같은 세례명 역시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미션스쿨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세례명을 곧 학교와 같은 공식 기관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녀즉지남(女子指南)』 제일권 제일호 <여자보학원 임원학도목록>⁴³⁾에는 양규의숙 학생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삼년급 학생 11명의 이름은 “리형즉, 성의즉, 리용즉, 리문즉, 리송즉, 리숙즉, 리미즉, 김유즉, 엄히즉, 박은즉, 김진즉”이다.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모두 ‘자’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년급 여학생은 이보다 좀 더 다양하지만 이 역시 ‘자’나 ‘순’으로 끝나는 이름이 압도적이다.

이 밖에도 동덕여자의숙의 연말시험에서 우등한 학생들 명단을 살펴보면 갑반 우등은 이경자(李瓊子), 박정애(朴貞愛)이고 합격한 9명은 유거라(柳巨羅), 이춘자(李春子), 조은자(曹銀子), 손월계(孫月桂), 손경월(孫景月), 오순자(吳純子), 설난자(薛蘭子), 고선경(高善卿), 백용자(白蓉子)이다. 을반에서 우등한 1인은 이선자(李璿子)이며 마찬가지로 9명의 합격자는 조봉진(趙鳳珍), 이순희(李順喜), 김용봉(金錦鳳), 임숙경(任淑卿), 백련자(白蓮子), 최귀성(崔貴星), 김옥순(金玉順), 정숙자(鄭淑子), 소실능자(小室綾子)⁴⁴⁾이다. 열거한 이들 역시 ‘자’로 끝나는 인물이 상당하다.⁴⁵⁾ 이처럼 초기 여학교에 등록된 여학생의 이름이 다양하지 않음은 이 시기 여성 이름의 정황을 그대로 드러낸다.

43) 『녀즉지남』의 <각녀학교임원교사생도>는 이화여자대학교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관계자료집:한말여성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1, 69-71쪽 및 아단문고에서 제공하는 아카이브를 이용하였다.

<http://archive.adanmungo.org/ebook/1457031160.953/1468389447.3793/mobile/index.html#p=60>

44) 소실능자의 경우처럼 당시 여자 이름에 신분을 그대로 드러낸 경우는 그다지 특이한 현상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규태와 이정선의 앞의 글 참조.

45) <同德女子義塾에本年內捐義^한신諸氏如左^함>, 『황성신문』 1908.12.27, 3면 광고 및 『동덕100년사자료집 I:1908-1014』, 동덕100년사편찬위원회, 2009.

4.3. 단체, 부인을 호출하다

대한제국 시기 국민이라는 미명하에 여성들의 참여와 활동이 요구되면서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은 단체 활동 및 사회활동에 나서게 된다. 특히 초기 여성 단체는 대부분이 귀족이나 고관대작들의 부인들 위주로 결성되었고 활동 역시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러 부인이 한성녀학원을 확장하라는 말은 전호에 게재하였거니와 그 발기한 부인들이 학교집 건축하자는 취지서를 짓고 그 뜻해 부인의 성씨만 쓴 이도 있고 혹 일흠을 쓰기도 해야 각 사회와 유지한 사람들과 기타 각 신문사에까지 보냈는데 그발기한부인은 궁녀부녀대신 민병석씨부인 심씨와 궁녀대신 리지극씨부인 조씨와 너부대신 리지용씨부인 홍경현씨와 한성부운 박의병씨 부인 류정씨라 그 취지서에 하였스되⁴⁶⁾

한성여학원을 개설하기 위해 여러 부인들이 앞장선다는 기사에 이어 그 발기인들을 기재하였는데 기사에서처럼 이때 “부인의 성씨만 쓴 이도 있고 혹 일흠을 쓰기도” 한다. 성씨만 쓴 이는 민병석의 부인 심씨, 리제극의 부인 조씨이고 이름을 쓴 이는 리지용의 부인 홍경현과 박의병의 부인 류정이다. 이들은 자선부인회, 진명부인회 등 각종 여성 단체에 관여하면서 회장에서부터 평의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처럼 여학교 설립이나 단체 조직, 각종 행사나 활동에 정부 대신들의 부인이나 고관대작의 부인을 비롯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잦아지면서 이름을 사용할 기회 역시 많아진다.

이 시기 대표적인 부인 단체 가운데 하나인 <자선부인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여성 이름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6) 『부인사회의활동』(런속), 『제국신문』 1906.7.14, 1면 논설.

<표3> 자선부인회 회원명부의 여성 이름⁴⁷⁾

분류	이름	명수
자	신현자 김석자 김인자 윤경자 박성자 정기자 이기자 민숙자 하석자 최장자 류성자 박영자 장옥자 서경자 김홍자 김수자 이현자 김영자 민정자 최학자 김충자 이경자(1) 이성자 구용자 박우자 이추자 이안자 신경자 이정자 김미자 강영자 이희자 김명자 강경자 김가자 이경자(2) 김순자 김송자 유문자 배경자 김진자 김은자 배우자 유홍자 서선자 정익자 김우자 김현자 서안자 이형자 이홍자	51
경	차천경 윤선경 김인경 김범경 김홍경 김봉경 김백경 김운경 박문경 최순경 최운경 김창경 김현경 주진경 김준경	15
당	정정당 김호당 김일당 박회당 김희당 김화당 김영당 김정당 장익당 박화당 이남당 이진당 주옥당	13
화	박명화 김인화 박설화 전인화	4
숙	최영숙 이정숙 차경숙	3
옥	변옥 홍도옥 이선옥	3
세례명	여매례황 엘시벨시 정마리아 정혜시대	4

여학교 이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인회에 등록된 여성들 역시 ‘자’로 끝나는 이름이 압도적이다. 이름에 ‘자’가 들어간 여성은 93명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자’라는 이름은 무려 7명이나 되며 성까지 동일한 사람도 있다. 다음으로 ‘경’과 ‘당’이 뒤를 잇는다. ‘당’으로 끝나는 이름자를 가진 여성들 가운데 ‘정당’이나 ‘화당’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많다. 그런데 ‘당’으로 끝나는 이름은 앞장에서 다룬바 당대 유행한 “당짜이름”으로 실제 이름이었다기보다 당호처럼 호칭에 가까운 표현이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된 신소당의 본명은 신영자⁴⁸⁾ 이름과 당호는 구분되는 것이지만 신소당은 본명보다 당호로 더 잘 알려진 것처럼 이 시기 자신의 이름을 두고도 당호를 더 선호하거나 당호를 이름처럼 사용한 이들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신 세례명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47) <자선부인회 회원명부>(『자선부인회잡지』 제1호, 1908.8)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관계자료집:한말여성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1, 137~138쪽 참조.

48) 『女會討論』, 『황성신문』 1907.1.17, 3면 잡보.

이로써 부인 단체의 활동이 교회나 미션스쿨과 어느 정도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 단체에 등록된 여성들의 이름 역시 여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지 않고 몇몇 특정 글자에 국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고관대작이나 유지한 부인들만 신문에 이름이 나고 각종 사회활동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 시기 국채보상이나 단연을 비롯한 사회운동이 일어났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대두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설이나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운동회나 졸업식과 같은 학교 행사에 참석하여 각종 의연금을 기부하거나 일본에 유학중인 단자유학생을 위한 의연금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이 펼쳐진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저 국척로향여금

나라히티평치못허읍 실바애야녀자도 국가우로지택을입사와외국성심이업
스오면신민의도리가아니오니녀즈등도다소참네코저동심합력이로소이다본회
에서의금내시난부인은본회회원으로성척에올니고씨명과금액은신문에공포하
겟스오니전국동포부인은조량하시압광무십일년정미정월 일

대안동사무소스십스통스호

발기인 리씨 송씨 김씨 박씨 계씨 엄씨 한씨 덩씨 신씨 오씨 윤씨등⁴⁹⁾

인용문은 여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신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기사이다. 국채보상으로 의연금을 내는 여성들은 그 성씨와 이름, 금액을 신문에 공포하겠다고 알리는 기사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발기인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들은 모두 자신의 성씨만을 밝혔다. 이처럼 처음에는 성씨만 표

49) 『국채보상부인회취지서』, 『대한매일신보』 1907.3.15, 3면 잡보.

기하거나 누구의 부인에서부터 모씨 등으로 등장하다가 점차 세례명이나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여성들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에 제시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이름⁵⁰⁾을 참고하면 경남단성군부인회에서 의견을 한 부인 가운데 최원영의 부실로 소개된 덩송경(정송경)과 사무원 최죽스(최죽사), 판기 김봉난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사와 “부인○씨”이다. 특히 35명 중 32명이 “○소사”이다.⁵¹⁾ 결국 『제국신문』의 지적처럼 소사는 구분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이 보다 명백해진다.

1907년 <여성국채보상단체일람> 가운데 발기인이 표시된 것만을 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²⁾

<표4> 1907년 여성국채보상단체 발기인

	단체명	발기인	신분	구분
1	大安洞國債報償夫人會	南北村某家夫人들 리씨, 송씨, 박씨, 계씨, 엄씨, 한씨, 령씨, 신씨, 오씨, 윤씨(회장, 신소당)	양반부인	성
2	婦人 減餐會	이완옹부실 金一堂	부실	성명-남편신분
3	國債報償女子義成會	이옥경, 리숙자, 김운곡, 박주경, 박청운, 정경옥, 리형렬, 진정옥, 김영자, 신영자	신여성	성명
4	糶米積成會	박우리바, 여누이사, 정하쓰더, 장마리아, 김쓸비여, 흥전심이	기독교부인	성명-세례명
5	남양군夫人義成會	김희경, 김혜경, 안마리아	기독교신여성	성명, 세례명
6	金浦김단면국채보상의무소	한씨, 노씨, 김씨		성
7	대구南一洞佩物	정운갑모서씨, 서병규처정씨, 정운화처김		성-남편신분

50)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24쪽.

51) <국채보상기성회 광고>, 『만세보』 1907.6.1, 3면 광고.

52) 박용옥, 앞의 책, 124~125쪽. 1907년 <여성국채보상단체일람> 가운데 발기인이 표시된 것만을 추려 정리한 이유는 여기에 기재된 이름이 여자보학원이나 자선부인회보다 좀 더 지역적, 계층적으로 보편적일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廢止婦人會	씨, 서학군처정씨, 서석군처최씨, 서덕군 처이씨, 김수원처매씨		
8	대구남산國債報償夫人會	이면주부인서주원, 具然陸부인	유지부인	성명-남편신분
9	國債報償脫環會	장의근장모공씨, 김덕유조모엄씨	유지부인	성-사위, 손자
10	國債報償婦人會	이진사부실文菊香	부실	성명-남편신분
11	晉州愛國婦人會	芙蓉	기녀	이름-기명
12	愛國償債會	이진사의부실, 河兪正의부실	부실	남편
13	濟州三徒里婦人會	申瑞鳳의妻홍씨	유지부인	성-남편신분
14	宣川郡義成會	該읍내부인 전주사김희탁부인, 전오이장김기언부인	前職宮人부인	남편신분
15	淸北江界夫人汲水報償會	이두일부인이소사, 김동공부인한소사, 니대규부인김소사, 성문규부인윤소사, 김풍부인김소사, 김봉은부인송소사, 정병규부인김소사, 김상우부인김소사, 최원섭부인양소사, 조덕하부인이소사, 양지달부인전소사, 김태희부인김소사	부실	성-남편/소사
16	永興郡國債報償減飯會	權영호, 姜念주	유지부인	성명-남편
17	安岳郡國債報償脫環會	공씨, 엄씨 등 10인	유지부인	성
18	延安李氏一門婦女會	河東鄭氏(李都事鉉奎夫人)	宗門중심양반부인	남편신분

30여 개의 단체 가운데 이름이나 성 등 발기인을 밝힌 단체는 18개이다. 이 가운데 성명을 모두 밝힌 경우는 이옥경, 리숙자, 김운곡, 박주경, 박창운, 정경옥, 리형렬, 진정옥, 김영자, 신영자, 박우리바, 여누이사, 정하쓰디, 장마리아, 김솔비여, 홍전심이, 김희경, 김혜경, 안마리아, 서주원, 文菊香, 權영호, 姜念주로 23명에 불과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인 단체에서 활동한 이들임을 알 수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이

“○씨”처럼 성만 밝히거나 남편의 이름 뒤에 처나 부인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소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흥미롭게도 신분에 따라 이름의 경향이나 유형들이 어느 정도 분별된다. <표4>의 신분 구분을 참고하면 크게 양반이나 유지 부인과 부실 그리고 기독교와 신여성 등으로 나뉘는데 자신의 성명을 모두 밝힌 경우는 대부분 기독교와 신여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들이다. 이에 반해 지방이나 양반 부인들의 경우 이름을 밝히는 일에 훨씬 소극적이거나 심하게는 사위나 손자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을 밝히는 경우들도 있다. 이는 앞장에서 살펴본 개명의 양상이 호명된 방식과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회나 학교, 단체 등의 활동을 통해 촉발된 개명 현상은 다른 어떤 곳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양상

5.1. 서구식 관습에 따른 경우

최초의 한국 여의사로 평가받고 있는 박에스터⁵³⁾는 일찍이 기독교에 입문하여 미션스쿨을 통해 미국 유학을 다녀온 선각자이다. 보구여관에 서 한국여성으로서 최초로 의료사업을 한 그녀는 박유산과 결혼하기 전에는 김점동이였다. 그녀의 가족사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 도착한 에스더는 의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1895년 2월 1일 에스더는 뉴욕 리버티의 공립학교에 입학하여 미국 고등학교 과정을 밟았다. 이때부터 에스더는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미국 관습에 따라 박에스터로 불리게 되었다.”⁵⁴⁾고 한다. 그러니까 김에

53) 박에스터(1877~1910)는 앞장에서 박에스터로 표시한 이와 동일한 인물이다.

54) 이방원, 「박에스터(1877~1910)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의사학』 16권 2호(통권 31호), 2007, 200쪽.

스터에서 박에스터로 바뀐 것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미세스 박으로 불려야 했던 그 곳의 사정에 의해서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 경우 미국 관습을 따랐다는 것 역시 서양의 제도를 따랐다는 것이 훨씬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박에스터는 그녀의 자매들과 관련해서도 매우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는데 김수미는 신마리아와 박에스터가 자매임에도 성이 다른 사실에 대해 “박에스터와 신마리아는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랐다. 이것은 서구식 풍습을 따른 것이다. 이들이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랐던 것은 신문물과 서구식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⁵⁾라고 서술하고 있다. 박에스터의 또 다른 자매들에 대해서도 “둘째인 김마리아(1873-1921)는 결혼 후 정동여학당(정신여학교의 전신)에 입학하여 졸업 후 교묘의 교사로 활동하였다. 넷째인 김배세(1886-1944)는 연동여학교(정동여학당의 후신)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 안에 창설된 간호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제1회 졸업생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였다.”⁵⁶⁾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마리아와 박에스터, 김마리아, 김배세는 모두 한 자매로 앞의 두 사람은 결혼 후 성을 바꿔 활동함으로써 원래의 성이 아닌 남편의 성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두 사람은 원래 성을 그대로 유지해 같은 자매인데도 성이 달랐던 것이다.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차미리사 역시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이 가운데 하나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바,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김미리사라고 부르고 나도 또한 김미리사로 행세해 왔으니가 일반 사람들은 나의 성이 김씨인줄로만 알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본성은 뚜렷한 연안 차씨다. 소위 가난한 놈은 성도 없다고 나는 약자

55) 김수미, 『개화기여성의 근대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기독교계통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명지대역사교육석사논문』, 1996, 59쪽 주석 74.

56) 이방원, 앞의 글, 194~195쪽.

인 여자로 태어난 까닭에 여필종부라는 옛 습관에 의지하여 나의 본성을 떼어 버리고 남편인 김씨의 성을 따라 김씨가 된 것이다.(조선습관에는 여자가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나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여자가 대개는 남편의 성을 따랐는데 나도 예수교회에 들어갈 때에 교회 습관에 의지하여 성명을 그와 같이 지었다.) 지금 와서 다시 차씨로 행세하기는 도리어 새삼스러운 일 같아서 아직 그대로 행세하나 금전상 거래의 증명문서 같은 데는 차미리사로 행세를 한다.⁵⁷⁾

이때 그녀의 나이 50세였다. 그의 전집 해례에 의하면 “그가 본래의 성을 되찾아 차미리사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936년부터였다”고 한다.⁵⁸⁾ 그러니까 거의 60세에 가까워져야 그녀는 자신의 본래 성을 찾아 차미리사로 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인용문이 특히 더 주목되는 이유는 차미리사를 통해 당시 성을 바꾼 여성들의 인식 일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조선 습관에 여자가 반드시 남편의 성을 따를 필요가 없었음에도 예수교회에 들어갈 때에 교회 습관에 의지하여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 말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데 자신이 성을 바꾼 것은 “여필종부라는 옛 습관”에 의지해서였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것은 조선의 습관이 아니라 서양의 관습이다. 자신은 예수교를 믿으면서 서양의 관습에 따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 서양의 관습이 조선에서도 강요하지 않았던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여필종부의 신개념을 창조해낸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조선습관”에서 “교회습관”으로 바뀌었어도 남편을 따른다는 여필종부의 대전제는 유효한 셈이다. 유교적인 관습은 본성(本姓)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르라 중용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원리에 순종해 자신의 성을 떼어

57) 김미리사, 「春風秋雨五十年間에多淚多恨한나의歷史」, 『별건곤』 11호, 1928.1, 54~58쪽.

58) 한상권 편저, 앞의 책, 30쪽.

버리는 논리는 조선의 옛 관습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양의 관습에 의해 작동된다는 점에서 착종을 불러일으킨다.

일찍이 중국과 미국으로 건너가 신식 교육을 받고 근대 여성 교육의 최전선에 위치했던 차미리사에게 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국면에서 조선과 서양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젠더적 차이를 새롭게 전유하도록 한 셈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서구-조선이 아니라 서구/남성과 조선/여성으로 대비된다는 점에서 서구는 곧 남성, 즉 가부장적 남성이 지배하는 유교적 논리와 동일하게 인식하도록 작동했던 것이다.

이화학당 출신으로 남편의 성을 따른 또 다른 예로 하란사를 들 수 있다. 하란사는 하상기(河相驥)의 부인으로 결혼한 여성으로는 최초로 이화학당에 자비 입학한 학생이다. 하란사의 본명은 알려져 있지 않고 다만 김씨 성을 가졌고 이화에 들어온 이후 Nancy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란사는 난시의 한역인 난사(蘭史)의 한글 표현인데 흥미로운 점은 하란사가 자신의 원래 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김하란사” 혹은 “Mrs. Nansa Kim Ha” 등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하란사에 대해 연구한 고혜령은 이를 두고 “하란사가 미국유학 시절에 사용한 이름에 Nancy라는 표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난사(蘭史)가 그의 본명 또는 예명이 아닐까 추측”⁵⁹⁾하기도 했다.

결혼 후 유학을 가는 도미유학생 여성들에게 남편의 성을 따른 경향은 더욱 두드러진다.⁶⁰⁾ 정병준이 제시한 <도미유학생 명단>에 의하면 백일규의 부인인 김낙희(金洛姬)는 백낙희로, 흥사단 단원이기도 한 신형숙은 유형기(柳潐基)목사와 결혼한 후 유형숙(柳潐淑)으로, 박재형과 결혼한 차경신(車敬信)은 박경신으로 이 밖에도 김경과 결혼한 임배세(Bessie Lim, 林培世)도 김배세로, 차의석과 결혼한 김에블린(Evelyn Kim)도

59) 고혜령, 「최초의 여학사, 하란사의 생애와 활동」, 『유관순연구』 제16호, 2011, 83~85쪽.

60) 정병준,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 경험」, 『이화사학연구』 제39집, 2009, 74~99쪽, <부록 일제하 한국 여성 도미유학생 명단(1)>.

차에블린으로 활동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여메레의 경우는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꾸다보니 두 번 이상 성이 바뀐다.⁶¹⁾ 여메레는 1874년 경북 창령 마씨 가문에서 출생했지만 12세에 이화학당 설립자인 스크랜튼의 양녀가 되어 그녀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화학당, 보구여관 등에서 활동하였다. 1898년 황현모와 결혼한 후⁶²⁾ 남편의 성을 따라 황메레로 활동했지만 혼자 미국 유학에 오른 남편이 신혼 3개월 만에 사망해 과부가 된다. 강제병합 이후 양홍묵의 재처(사별)로 들어가 황메레에서 양메레로 성이 바뀌고 양홍묵과도 사별하자 원래의 이름인 여메레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결혼할 때마다 남편의 성으로 바꾸게 되면서 빚어진 이런 결과를 두고 “성을 셋이나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는데 이는 근대 여성들을 스캔들의 소재로 대상화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5.2.일본식 관습에 따른 경우

『제국신문』은 부인들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논설에서 실제 유지 부인들의 이름 짓기가 유행하는 대표 사례로 내부대신 이지용의 부인 홍씨와 한성판윤 박의병의 부인 류씨를 소개한 바 있다.

근일 유지훈 부인들은 일흠짓기를 남즈와 방불하게 하는 자 더러이 잇으나
 녀부대신 리지용씨 부인 홍씨는 홍경현敬賢이라 일흠히고 한성판윤 박의병씨
 의 부인 류씨는 외즈 일흠으로 류덩 柳汀이라 일흠흐야 학교 창설하는 발기인
 으로 광포하얏스니 그런 대관네 부인도 일흠짓기를 시작흐얏스니⁶³⁾

61) 여메레에 대해서는 이덕주, 「성을 두 번 간 여인-여메레」, 『새가정』 356, 1986, 76~80쪽; 윤정란, 「구한말 기독교 여성의 삶과 여성교육운동-여메레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1집, 2009, 167~201쪽.

62) 여메레에 대해 연구한 윤정란에 의하면 “여메레가 황현모와 혼인한 것은 1899년으로 알려져 있지만, 1898년부터 황메레로 표기된 것을 보면 혼인시기가 1898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정란, 앞의 글, 179쪽.

고종의 사촌인 리(이)지용은 당시 내부대신으로 외부와의 교제가 많았고 이때 부부 동반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잦게 된다. 당시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은 일반적으로 부인 ○씨로만 불리는 게 상례였다. 이에 대해 『제국신문』은 부인들 역시 이름이 있어야 함을 강론하면서 이지용의 부인 홍씨가 경현(敬賢)이라는 이름으로, 박의병의 부인 류씨가 외자인 정(汀)으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 한성여학교 발기인으로 참석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은 한성여학원 개설 취지를 알리는 기사의 마지막에 발기인으로 등장한다.⁶⁴⁾

그런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이들은 아래와 같이 또 이름을 바꾼다.

特派大使李址鎔氏夫人의 名啣은 本來敬賢氏인디 今番渡日 하는 事에 對하야 李洪卿氏로 改名 하고 隨員朴義秉氏의 夫人은 柳洲卿氏로 하고 一齊히 洋服을 掛着 하고 明日上午七時에 京釜鐵道第一番列車를 搭乘 하고 發向 暭 預定이라더라⁶⁵⁾ (밀줄 강조-인용자)

인용문에 서술된 대로 이지용의 부인의 원래 이름은 경현, 즉 홍경현인데 이홍경으로 개명하고, 박의병의 부인 유정도 유주경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내용이다. 흥미로운 점은 홍경현이 자신의 성 대신에 남편 이지용의 성을 쓰면서 자신의 성을 이름에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홍경에서 이와 홍은 모두 성이고 경만 이름 글자로 바꾼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성을 남편의 성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라 두 성씨를 모두 포함하여 자신의 이름을 만든 것이다. 앞서 하란사가 김하란사로, 여메레가 황

63) 「부인사회의활동」(련속), 『제국신문』 1906.7.13, 1면 논설.

64) 「漢城女學院開設趣旨」, 『황성신문』 1906.7.9, 3면 잡보.

漢城女學院開設趣旨 發起人 告白 가운데 이름을 밝힌 이들은 “宮內府內大臣閔丙奭氏夫人沈氏, 宮內府大臣李載克氏 夫人趙氏, 內部大臣李址鎔氏 夫人洪敬賢, 漢城府尹朴義秉氏 夫人柳汀”이다.

65) 「大使發程」, 『황성신문』 1906.11.27, 2면 잡보.

여메레나 여메레황으로 표기된다거나, 추정이지만 민영기의 부인으로 소개된 민박영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는 마치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부계와 모계의 성을 모두 성명에 포함하고 있는 사례와 흡사한 방식이다.

이에 비해 박의병의 부인 유정은 처음에는 이름만 주경으로 바꾸지만 곧 홍경현처럼 남편의 성을 따라 박주경으로 개명한다. 그리고 홍경현 역시 자신의 성을 그대로 두었던 이홍경에서 성을 제외시키고 옥경으로 이름을 바꾼다.

女子教育會에서 今日에 苑洞總事務所에서 通常會를 開호고 會務를 處理호는디 該會館建築이 告竣된 故로 新建館內에서 自今日로 視務호기로 호고 該會一般 任員은 教育總裁에 內大 李址鎔氏 夫人 李鈺卿氏로 評議長은 內協 朴義秉氏 夫人 朴洲卿氏로 教育課長은 修學院長 李載克氏 夫人으로 教監은 軍大 權重顯氏 夫人으로 女工課長은 法大 李夏榮氏 夫人으로 衛生課長은 度大 閔泳綺氏 夫人으로 生命保險課長은 李根湘氏 夫人으로 殖産商務課長은 金奎弘氏 夫人으로 選定되얏다더라⁶⁶⁾

정리하면 이지용의 부인 홍경현은 부인 홍씨->홍경현->이홍경->이옥경으로, 박의병의 부인 유정은 부인 유씨->유정->유주경->박주경으로 이름과 성을 여러 차례 변경한다. 이 밖에도 1907년 진명부인회 윤정식의 부인 홍선경의 경우, 그해 9월 자선부인회 평의원 명단에는 '윤선경'이라고 하여 남편 성을 따르고 있다.

前警務官 尹定植氏 夫人 洪善卿氏는 進明婦人會評議員으로 貨金 五圓을 養閨義塾에 捐付호고 學業을 勸勉호얏다 호니 該夫人의 勸學熱心은 聞者莫不攢賀호는다더라⁶⁷⁾

66) 「女會任員」, 『황성신문』 1907.2.22, 2면 잡보.

67) 「洪氏勸學」, 『황성신문』 1907.6.28, 1면 잡보.

앞서 언급된 이들은 모두 고작대작의 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내외법이 철폐되고 고관대작들의 사교 모임에서 부부 동반이나 여성들의 참여도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일련의 성명 변환은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다는 점에서는 서구식 방식과 유사할지 모르지만 이들은 교회나 미션스쿨이 아니라 사교 모임이나 부인 단체를 중심으로 대두되었으며 무엇보다 이들의 남편이 황실의 측근이나 고관대작이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맥락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양상을 당대에 이미 예리하게 포착하여 비판한 이가 있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이지용의 부인이 일본 사교계에 진출하면서 '이홍경'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이 여성 이름의 시초라고 서술해 두었는데 이를 “왜국 풍속을 본받아 저마다 자기 이름”을 쓴 것으로 간주했다.⁶⁸⁾ 그러니까 황현에 의하면 이 고관대작들의 부인들은 일본식 관습에 따라 자신의 성을 남편과 동일하게 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여성운동의 역설적인 현상에 대한 박용옥의 서술은 주목할 만한데 그에 의하면 “여권운동의 현상은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화로 치닫는 과정에서 변칙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친일배의 매국적인 사회교제가 빈번해지면서 사교계에 그들 부인의 참석이 요청되었고, 이러한 사교계에 전통적 부덕을 가진 부인들이 참여하지 않자 활동이 비교적 자유스러운 부실들이 많이 참여 활동하게 된 데서 파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⁶⁹⁾ 이 언급은 이름을 바꾸면서 활동한 여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구적인 교육과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부인사회의 단체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 여성들의 배후에는 친일적인 인사들의 부실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의 활약이 상당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근대 초 흥기한 여권운동은 공고한 양반사회의 질서 속에서 비교적 거동이 자연스러웠던 부실이나 중인 이하의 계급에 속하는 여성들에 의해 그 단초가

68) 황현, 『역주 매천야록』 하, 임형택 외, 문학과지성사, 2005, 358~359쪽.

69) 박용옥, 앞의 책, 37쪽.

마련되거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공과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이들은 당시뿐 아니라 이후 역사에서 조롱의 대상이 된다.⁷⁰⁾

5.3. 신(新)여필종부와 여권신장의 경계

앞서 언급했듯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사례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되었고 그 원인에 대해서도 서구화에 따른 추정이라고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의견들이 도출된 바 있다. 다음과 같은 서술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주목할 것은 남편과 같은 성을 사용한 여성이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 양상과 원인이 다르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조선에서는 여성이 결혼 후에도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개화기 신여성의 경우 성과 이름이 종래와 크게 달라진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이 시기 하나의 문화적 산물로 특기할 만하다.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은 시집을 가도 여자는 남자의 집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증거라고 해석하면서 남편과 같은 성을 쓰는 여성들이 새롭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들은 교회를 통해 부부가 같은 성(남편의 성)을 쓰는 서양 문화를 접하고 이를 모방했다. 미공사관 참서관 김윤정의 딸은 학무국장인 남편 윤치오를 따라 윤고려라고 했으며, 정화여학교를 세운 김정해도 양재천의 딸이었으나 남편 김영중의 성을 따라 김정혜로 이름하고 여성교육에 헌신했다. 이 같은 여성의 성바꾸기와 서구식 이름은 특히 기독교계 여성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략) 그들의 성은 남편을 따라 불렀거니와 이름도 기독교식 세례명이었다.⁷¹⁾

인용문에서 언급된 김정혜(1868-1932)와 윤고려(1891-1913)는 앞서 살펴본 양상들과 다른 전개를 보이는데 가령 김정혜의 경우 그녀가 양정

70) 앞서 인용한 황현의 글에 언급된 작설가(嚼舌歌)가 대표적이다. 황현, 앞의 책, 358~359쪽.

71) 한상권 편저, 앞의 책, 40~44쪽.

혜에서 김정혜로 성을 바꾼 것은 결혼을 하면서가 아니라 기독교에 입교하고 나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혜에 대해 최은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그녀의 종교심은 점차 두터워져 2년 후에는 개성 북부 예배당에서 캄풀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양씨 성을 냉정히 버리고 미세스 김으로 불려졌다. 이는 서양 풍속을 무조건 따랐다가보다는 김씨 문호를 빛내겠다는 일심에서 굳게 다짐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⁷²⁾ 『정화오십년사』사에 제시된 김정혜의 가계도에는 양재천의 딸 양정혜로 기록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선생이 김씨로 통칭한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요절한 부군 김영종(金永種)씨의 사업을 계승하여 김씨 문중을 빛내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선생이 기독교 신자였기 때문에 양속을 쫓아 부군(夫君)의 성을 따게 된 것이다.⁷³⁾

흥미롭게도 최은희나 『정화오십년사』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듯 김정혜의 성씨 전환은 “김씨 문호” 혹은 “김씨 문중”을 빛내겠다는 일심에서이다. 김정혜는 양재천의 막내딸로 11세에 성균관 진사 김홍덕의 양자인 김영종에게 출가하였지만 3년 만에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되었다. 그녀의 경우는 남편이 죽고 난 후 개가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성을 바꾼 것이다. 11세에 김영종에게 시집가 14세에 과부가 되어 40대를 전후하여 기독교에 입교하게 된 그녀가 이미 죽은 남편의 성을 따랐다는 것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녀가 빛내겠다고 한 김씨 문중은 육영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녀의 뜻에 반대하였다. 물론 그녀가 한학을 수학했고 순종적인 여인상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한 양반가의 딸이자 며느리였다는 점, 남편 사후 방탕한 생활로 지내다 40대를 전후하여 개신교에 입문한 후 자신의 성씨를 바꿀 정도로 문명세

72) 최은희, 『여성개화열전』, 정음사, 1978, 158~159쪽.

73) 정화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2쪽 및 139쪽.

레에 침잠했다는 이력은 특기할 만하다.⁷⁴⁾ 그럼에도 이러한 특이한 이력이 사별한 지 한참 지난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꾼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여메레의 경우처럼 결혼할 때마다 남편의 성으로 바꿨을지라도 남편과 사별한 후에는 본래 자신의 성으로 돌아온 경우라면 모를까.

학무부장 윤치오의 부인으로 김윤정의 딸인 김고려(김고라) 역시 결혼 후 윤고려(윤고라)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활동을 재개한다. 윤치오는 1년 전 부인상을 당해 신문에 공개 구혼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유학을 다녀온 김고려는 윤치오가 신부감으로 내세운 조건에 맞는 여성이었는데 그의 재처가 되어 각종 부인 단체와 양정학교 등 사립학교 설립에 활발하게 참여하지만 안타깝게도 30세에 세상을 떠난다. 윤고려의 경우 유학을 다녀오고 양장을 하는 등 신학문과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영향에서인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그녀는 양반의 딸이었지만 윤치오의 재처가 되어 홍경현이나 류정처럼 고관대작들의 사교 모임이나 부인 단체에서 활동했다.

이처럼 양반이었던 그녀들이 기독교와 유학을 통해 신문물과 신사상을 접하고 공개 구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고 신식 결혼을 하면서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것은 단순히 서양 관습을 따랐다는 것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보다 복잡한 층위가 있다.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여성들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로부터 탈피해 기독교와 서구적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따른다는 여필중부의 대전제를 두고 착종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강선미가 지적했듯 “하느님이 여성에게 정해주신 마땅한 자리는 남편의 곁에서 그의 동반자이자 내조자가 되는 것”이라는 아펜젤러의 말이 대표하듯 한국 기독교가 유교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여성 주체의 형성을 방해했다⁷⁵⁾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74) 김형목, 「김정혜의 사립 정화여학교와 육영사업」, 『여성과 역사』 제25집, 2016, 57~82쪽.

75) 강선미는 아펜젤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아펜젤러와 같은 기독교 사상이 유교적 가

<표5> 근대 초기 성(姓)을 바꾼 여성들의 전환 양상

대상	본명	세례명	성씨전환	남편	종교/신분	직업/활동	비고
박에스터	김정동	에스더	박에스터	박유산	기독교	의사	신마리아, 김마리아, 김배세와 자매
차미리사	섭섭이	미리사	김미리사	김진옥	기독교	교육가	
하란사	미상	넨시	하란사	하상기	기독교(후처)	교육가	김씨/김하란사
여메레(황)	여메레	메리	황메레 양메레	황현모 양홍목	기독교	교육가	
홍경현	홍경현	×	이홍경 이옥경	이지용		대한부인회	
류정	류정		박주경	박의병		대한부인회	
홍선경	홍선경		윤선경	윤정식		진명부인회	
김정혜	양정혜	×	김정혜	김영종	기독교/양반 (제가하지 않음)	교육가	세례명 미사용. 남편 사후 성 바꿈
윤고려	김고려 김고라	×	윤고려	윤치오	기독교/양반 (재취)	교육가	유학(신학문), 양장(신문물)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꾼 것을 두고 서양식 관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서구적인 관습에 따라 교회에서 세례명을 얻고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경우에는 주로 학교와 결혼 등 서구식 제도를 따른 경향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이나 이주 등의 경험을 경유하고 있으며 이후 종교, 교육, 의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직업여성으로 활동한다. 한편 기독교나 신식 학문과 무관하게 사교 모임이나 부인 단체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들도 상당하다. 이들은 대부분 고관대작들의 부실이나 부인들로 남편의 신분과 지위를 통해 활동한 경향이 있으며 초창기 부인회나 여성 단체를 결성하여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 신장하는 데

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여성주체의 형성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강선미, 앞의 책, 181~182쪽.

기여한다. 반면 윤고려나 김정혜의 경우처럼 이름은 그대로 두고 성만 남편을 따른 경우들도 있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받아들이고 서구적인 문명의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근대 초기 여성들의 이러한 행보는 이 시기가 가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관습과 새로운 사상이 상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상충된 충돌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동성(同姓)을 지향한 것이 아니라 시집을 가도 그 집에 뼈를 묻는다는 인식은 분명 여필중부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종속 아래에서 벗어나 남편의 성을 따른다는 것은 유교적 의미에서의 여필중부와는 다를 수 있다. 김정혜의 경우처럼 여전히 문중이나 가문과 분리되지 않은 채 혼종적인 양상을 띠 수도 있지만 집안(家)이나 문중(門中)이 아닌 단란한 가족 구성으로서의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내포될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개인으로서의 여성 주체와 관련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6. 결론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근대 초기 여성의 성명에 나타난 착종과 모순을 살펴보기 위해 근대 초기 이름과 성을 바꾼 여성들의 행적과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구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근대 초기 이름과 성을 바꾼 여성들이 한두 명에 그치거나 특이한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상당하다는 점에서, 더욱이 특정한 양상들까지 보인다는 점에서 근대적 현상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 단순한 일회적 스캔들로 서술되거나 헤프닝으로 취급된 성명을 바꾼 여성들의 사례를 본격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이들을 하나의 '문제적인 대상'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들이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현상

들이 근대의 착종과 모순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 개명의 사례들을 양상별로 체계화하였다. 이름 없는 여성들이 집을 나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름을 얻고 호명되었는지를 학교, 교회, 단체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 점은 단순히 이름이 붙린 장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소와 공간을 통해 여성이 사회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근대 이전까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공식화되거나 공적인 장소에서의 여성의 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장소에 따른 여성 이름은 근대와 근대 이전의 여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주지하듯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여성이 서구를 가장 먼저 체험한 곳이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육 사업이나 의료, 자선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신도들의 활약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 중 하나이다. 특히 근대 초 박에스터나 차미리사, 황여메레와 같이 선각자적인 모습을 보인 여성들 대부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이들은 기독교를 통해 신앙뿐 아니라 신교육까지 접하게 되면서 영어는 물론 의학, 가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접하게 된다.

학교 역시 당시 여성들이 공식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으며 여성들에게 새로운 규범들을 요구했던 곳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름을 부르는 출석과 출석부와 같은 각종 명부이다. 이름을 가지지 못한 여자 아이들은 이제 출석 체크를 위해 이름이 필요했고 실제로 입학, 졸업, 재학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각종 명단에 기재하기 위해 이름을 짓기 시작한다. 한성고등여학교의 경우 교장인 어윤적이 이름 없는 학생들에게 일괄 이름을 부여했다는 등의 일화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방증한다. 미션스쿨의 경우 절반 이상이 세례명이거나 여자보학원 명단의 경우 이름이 단 몇 가지로 유형화 되는 등의 특징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예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시기 여학교의 출석부를 조사하여 여학생들의 이름을 유형별로 파악해 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회와 학교 다음으로 여성 이름의 양상이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여성 단체이다. 근대 초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사회운동에 여성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는데 부인회와 같은 여성 단체 및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하자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처럼 단체나 회(會)는 개별적인 측면을 넘어 조직적인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의미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근대 초기 이름을 바꾼 여성에 그치지 않고 성(姓)을 바꾼 여성들에 주목하여 이 여성들의 성씨 전환 양상을 살펴보았다. 서구적인 관습에 따라 교회에서 세례명을 얻고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경우는 주로 학교와 결혼 등 서구식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이들 대부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거나 유학이나 이주 등의 서구적 체험을 경유하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꾼다는 인식의 기저에는 기독교적인 순종의 미덕과 유교적인 가부장적 질서가 착종되어 있다. 한편 기독교나 신식 학문과 무관하게 사교 모임이나 부인 단체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들도 상당하다. 이들은 대부분 고관대작들의 부실이나 부인들로 공고한 양반사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거동할 수 있다는 신분적 편익과 남편의 신분과 지위를 활용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추구했지만 일시적 유행에 그치고 말아 시류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반면 윤고려나 김정혜와 같이 양반 계급에 속하면서도 남편을 따라 성을 바꾼 경우, 가문을 빛낸다는 전근대적 명분이나 남녀 개인의 결합이라는 근대적 결혼과 결부될 가능성들도 있다. 이처럼 남편의 성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꾼 성씨 전환의 다양한 양상과 다층적인 측면을 고찰했다. 이로써 남편을 따라 자신의 성을 바꾸는 현상이 단순히 서구화의 추종만도 아니며 근대로의 유입 과정에서 여성들 스스로가 기투(企投, Entwurf)한 존재론적 실천 방식이었음을 고찰했다.

여성들이 성을 바꾸는 사태를 두고 기존 연구나 선행 사례에서는 서구화에 강력하게 추동되었다거나 일본식 관습을 추정한 것이라는 등 비판으로 일관한 경향이 있다. 물론 서구화에 추동된 것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이들을 서구화에 추동되도록 내몬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성에게

직업을, 평생을 바쳐 하고 싶은 유의미한 일들을 교육을 통해, 종교를 통해, 사회활동을 통해 찾아내도록 한 추동력이라면 모를까, 인간으로서의 삶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직업이나 일을 왜 근대 초기 여성들이 그토록 강하게 열망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저에는 인간다운 기회와 자유의지가 바탕하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압제도 남편의 압제도 아닌 스스로의 결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아가 성을 바꾸면서까지 획득하고 싶었던 것은 다름 아닌 ‘인간다움’일 것이다. 『정화오십년사』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이들의 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자라도 더 배워서 사회에 헌신 봉사 하겠다는 것이요 또 한편, 구 가족제도에 얽매어 있던 그들은 시가(媿家)나, 남편에게서 해방되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또한 일부 학생은 외국으로 유학 간 분들의 부인으로 자기들도 남편에게 뒤떨어지지 않게 자신의 발전에 힘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여성계의 선구자(先驅者)로서 배움의 길에 나섰던 것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꾼들이 되었다. 이들은 자기네들이 배운 것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달하는데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⁷⁶⁾

76) 정화오십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62쪽.

참고문헌

1. 자료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매일신보』, 『너즈지남』, 『자선부인회』, 『기호홍학회월보』, 『창조』, 『동광』, 『별건곤』, 『삼천리』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대구흥사단 편찬, 『국채보상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 1-4권, 국채보상운동기념사회, 2007.

경기여자중고등학교, 『경기여고오십년사』, 경기여자고등학교, 1957.

동덕100년사편찬위원회 편, 『동덕100년사자료집』, 동덕100년사편찬위원회, 2009.

이대한국여성연구소 편, 『한말여성관계자료집』, 이화여대출판부, 1981.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동창회, 『이대인명록』, 이화여자대학교, 2004.

이화칠십년사편집위원회 편, 『이화칠십년사』, 이화여자대학교, 1956.

정화오십년사편찬위원회, 『貞和五十年史』, 정화오십주년기념사업회, 1958.

한상권 편저, 『차미리사 전집』 I·II, 덕성여대차미리사연구소, 2009.

2. 단행본

강선미, 『한국의 근대 초기 페미니즘 연구-서양여성교사와 조선여성들은 어떻게 만났을까』, 푸른사상, 2005, 186~209쪽.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2001, 79~120쪽.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20세기 전반기 신여성과 근대성』, 푸른역사, 2004, 14~21쪽.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19~39쪽.

김연숙, 『그녀들의 이야기, 신(新)여성』, 역락, 2011, 13~34쪽.

문옥표, 『신여성: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 51~82쪽, 119~154쪽.

-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36~37쪽, 121~144쪽.
- 손인수, 『한국여성교육사』, 연세대학교출판부, 1977, 244쪽.
- 연구공간수유+너머근대매체 연구팀, 『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신여성』, 한겨레신문사, 2005, 49~51쪽.
- 이경지 외, 『김정혜여사소전』, 개성여자교육회, 1928, 27~32쪽.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35~74쪽.
- 이희경, 『新女性:매체로 본 근대 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2005, 11~53쪽.
- 전경옥 외, 『한국여성문화사1:개화기-1945년』, 숙대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13~68쪽.
- 최은희, 『여성개화열전』, 정음사, 1978, 158~159쪽.
-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 공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4, 15~40쪽.
-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137~143쪽.
-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담론』, 해안, 2009, 153~214쪽.
- 황현, 『역주 매천야록』 하, 임형택 외, 문학과지성사, 2005, 358~359쪽.
- 노블부인 편, 『승리의 생활』, 조선기독교 창문사, 1927, 40~72쪽.
- 샤를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분도출판사, 1979, 183~197쪽.
- 제이콥 로버트 무스, 『1900, 조선에 살다』, 문무홍 외 역, 푸른역사, 2008, 144~160쪽.

3. 논문

- 고혜령, 「최초의 여학사, 하란사의 생애와 활동」, 『유관순 연구』 16호, 2011, 75~109쪽.
- 김수미, 「개화기여성의 근대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기독교계통의 여학교를 중심으로」, 명지대역사교육석사논문, 1996, 1~71쪽.
- 김재국, 「現代 女性의 姓氏에 관한 權利」, 『민사법연구』 8권, 대한민사법학회,

2000, 83~107쪽.

김하라, 「조선 여성의 이름에 대한 한 고찰-유만주의 여성인식과 관련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2013, 83~118쪽.

김형목, 「김정혜의 사립 정화여학교와 육영사업」, 『여성과 역사』 제25집, 2016, 53~88쪽.

방상근, 「18세기 말 조선 천주교회의 발전과 세례명」, 『교회사연구』 34, 2010, 63~88쪽.

배대운, 「여자이름 '召史'에 대하여」, 『배달말』 35권, 2004, 431~446쪽.

윤정란, 「구한말 기독교 여성의 삶과 여성교육운동-여메레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11집, 2009, 167~201쪽.

이경하, 「애국계몽운동가 申蕭堂의 생애와 신문독자투고」, 『국문학연구』 11권 11호, 2004, 115~131쪽.

이덕주, 「성을 두 번 간 여인-여메레」, 『새가정』 356호, 1986, 76~81쪽.

_____, 「초기 한국 기독교 여성 역사 이해」, 『세계의 신학』 제28호, 1995, 115~131쪽.

이방원, 「박에스터의 생애와 의료선교활동」, 『의사학』 16권 2호, 2007, 193~213쪽.

이임하, 「20세기 여성,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다를 내면서」, 『20세기 여성, 전통과 근대의 교차로에 서다』, 국사편찬위원회, 2007, 6~13쪽.

이정선,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이름 정책과 이름의 변화 양상들」, 『역사민속학』 49, 2015, 87~120쪽.

정병준,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 39호, 2009, 29~99쪽.

조규태, 「민적부에 나타난 여자 이름 연구」, 『여성문제연구』 10, 1981, 297~306쪽.

_____, 「朝鮮時代 女子 이름의 語學的 考察」, 『여성문제연구』 9, 1980, 283~306쪽.

최숙경, 「개화기 여성 생활 문화의 변동과 전개」, 『여성학논집』 16호, 1999,

9~29쪽.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한국 ‘신여성’과 ‘근대’의 만남」,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5권, 2005, 195~218쪽.

4. 기타

아담문고 아카이브

<http://archive.adanmungo.org/ebook/1457031160.953/1468389447.3793/mobile/index.html#p=60>

한국언론재단 고신문 아카이브

<https://www.bigkinds.or.kr/news/libraryNewsDir.do>

Abstract

A study on the Entangling and Contradiction in Names of Modern Women

- Focusing on Women Changing First Names and Last Names in the Early Modern Age

Kwon, Du-ye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odern aspects of crack and entangling in female life, in a stratified way that focusing on the renaming and switch of last names among Korean women in the early modern age. Names were given to women to a limited extent before modern times. Although some of women in the early modern age change their first and last names, so far, these cases have been regarded as, women who strongly follow the an exceptional existence or the conventions of westernization. But this phenomenon needs to be discussed in earnest, because it not only gives rise to questions about the ontological position of modern women, but also reveals the intersection at which modern times are entangled in a struggle for recogni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nameless women got their names after leaving their homes and they were called, through schools, churches, and organizations. Moreover, the cases of Western and Japanese women changing their last names to those of their husbands were considered separately, this study reconstructed the multi-layered aspects of women, who received baptismal names through Western Christianity and who changed their first and last names while studying abroad or receiving new education. This unpacks the

meaning of renaming as a social phenomenon and implies that changing last names to those of their husbands was not merely an cult of westernization.

Key words : Modern Women, Female Name, Renaming, Switch of Last Names,
School, Church, Wives' Association

■ 본 논문은 2018년 3월 24일에 접수되어 2018년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4월 2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